

부족한 제가 제1회 서울시민 대상을 수상하던 날, 1974년 천국으로 떠난 딸아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젊은 날, 의사가 되기를 소원하여 이 땅의 가난하고 험벗은 사람들을 위해 인술로 헌신하겠노라 하나님께 서원했던 제가 막상 의사가 되어서 환자가 몰리고 돈이 벌리자 주일까지 범하는 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동작동에 개업을 했었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병원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려와 교통사고 환자로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기사인 듯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를 안고 뛰어 들어 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받아 응급처치를 하려다가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는 바로 사랑하는 제 딸아이였습니다. ‘오 하나님’ 부르짖으며 딸아이의 심장에 청진기를 갖다 대었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다. 하나님! 어찌 이리 하실 수가! 저는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사 가운을 벗어 버렸습니다. 병원 문도 닫아 버렸습니다.

눈이 떠지면 실신한 사람처럼 딸아이의 무덤을 찾는 일만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겨울이 되어 딸의 무덤에 내린 눈이 아이를 춥게 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 옷을 벗어 맨몸으로 아이의 무덤을 겨안고 아버의 체온으로 눈을 녹여 주어야 했습니다.

이듬해 봄, 변함없는 일과로 딸아이의 무덤에 다녀오는 길목에서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손녀를 안고 울고 있는 가난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선배의 병원에 그 아이를 업고 가서 치료비를 내가 부담할 터이니 고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먼지 쌓인 병원을 둘러보고 ‘아저씨두 의사야? 근데 왜 의사 옷을 안 입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오래만에 가운을 입고 먼지 쌓인 의자에 앉아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었습니다.

아!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천지를 깨우는 듯한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힘찬 고동소리는 내가 그러도 안타깝게 그리워했던 딸아이의 심장 고동소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하던 날 그토록 청진기를 갖다 대어도 들리지 않던 바로 그 심장소리 말입니다. 그 고동소리는 아버의 죽었던 영혼을 깨우는 힘찬 고동소리였습니다. 오 하나님! 신음하는 저를 아이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그 맑고 영롱한 눈동자 또한 죽었던 딸아이의 눈동자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저를 이제사 깨우십니까?”

그 길로 저는 남현동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살고 있는 봉천동에 병원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었습니다. 이 모든 일 위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교회 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99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City 한인교회 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 자원함-섬김 * 익명성-명예 <예배> 주일 1:30
제 1 권 3 호	"가서 너희도 이와같이 하라"(눅10:37)	1999년 8월 1일
☎(64-9)298-6464 ☒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99년 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City 한인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린지 오늘이 3주일 제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그것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다보면 채워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적인 욕심으로 교인 숫자에 급급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훈련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기대할 수 없으며 원칙 없이 그때그때 마다 진행과정이 다르다면 공평함이 없는 차별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창립교인이라는 신선함과 자부심을 갖고 다음과 같이 교회전통을 세워나갈 것을 제안하며 교우들의 기도와 동역을 바랍니다.

1. 기초성경공부 이수(신앙)
 - *City 한인교회 성도는 누구든지 구원론(2회),성령론(2회)을 이수하며 그 후에는 계속적인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와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을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2. 주일예배에는 정장차림으로(예배)
 - 자유롭게 옷을 입고 사는 kiwi들이지만 주일에 교회갈때는 정장차림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복 입고 있을 때와 양복 입고 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더군요. 주일예배는 이미 집에서 시작됩니다.
3. 남의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맙시다(생활)
 - 교우끼리 혹은 교민이 모인 자리에서 칭찬이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화제로 삼지마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나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비전을 가지면서 작은 것부터 전통을 세워 나가는 창립의 증인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일 예 배

오후 1:30

묵 도
Silence

다 같이

***찬 송**
Hymn

32 장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 (시 4 편)

***참 회 의 기 도**
Confession Prayer

***용 서 의 선 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김성국 목사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 같이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88장

기 도
Prayer

성 경 봉 독
Bible Reading

마태 1:1 - 17

설 교
Sermon

“복음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

김성국 목사

설 교 후 기 도
Prayer

설 교 자

찬 송
Hymn

202 장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헌금은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드립니다

인 도 자

***위 탁 의 말 씀**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좋은신 하나님 좋은신 하나님
참 좋은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
참 좋은신 나의 하나님

① 교회소식

1. 오늘 예배는 예배당에서 NZ내 모든 samoan 교회 특별모임관계로 room에서 드립니다.
2. 본 교회 등록을 위한 안내와 규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의 예배 참석을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번 이상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등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등록서를 이용하여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3. '99년도 교회표어를 새웠습니다. 3부분(신앙, 예배, 생활)에 따른 금년도 표어를 통해 우리 교회의 전통을 세우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4. 금주(8월 첫주)부터 격주(1,3주) 금요구역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처음 4 주간은 구원론과 성령론 공부를 합니다. 함께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한 기도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구역기도회(격주모임): 1,3주 금요일

*장소:

*시간: 저녁 7:30분

*어린이: video 성경이야기

5. 예배를 위해 올겐&피아노 반주하실 성도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6. 재정위원들을 위한 orientation이 예배 후 본당기도실에서 있습니다.
7. 9월 방학기간에 창립기념 전교우 신앙캠프를 계획합니다. 크리스찬캠프 프나 기타 좋은 장소(2시간이내)를 알고 계신 교우의 정보를 기다립니다.

*일시: 9월 25(토)-26(주일)

*장소: 미정

알고계십니까?

*윤전중 찬송, 복음송가를 들으시려면 AM 882 (Southern Star)에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8월 교회력

6일 금요구역기도회(7:30)

15일 광복기념예배/ 9월 25-26일 신앙캠프

■8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tea time
1	*	김 정 훈	한 건	안은주/김성국
8		지 윤 수	지 윤 수	김 효/지윤수
15	*	한 건	한 건	안은주/한 건
22		지 연 희	지 윤 수	김 효/지윤수
29		김 효	한 건	안은주/김성국